미사일에 달린 이상가족 상봉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9일 수요일 제329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8일>

코스피 1878.68 (-4.54)

코스닥 638.22 (-10.58)

금리(국고채 3년) 1.65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200.90 (-3.40)

멤버십 할인? 상인만 봉

2013년 3월 시내 한 편의점에서 KT 사내 모델이 편의점 미니스톱과의 멤버십 제휴를 시연하고 있다. /KT 제공

이통사 포인트, 상당부분 소매상인 몫
편의점,빵집,커피점 등 "팔면 팔수록 손해"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급 회원에게는 포인트 무제한 혜택을 준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빵집,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놀이공원, 온라인 쇼핑몰 등 각 통신사의 제휴처에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많으면 결제 금액의 50%까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이 멤버십 서비스는 이통사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고객 혜택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자사의 고객 혜택을 위해 이통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맺은 가맹사업자들은 제휴 할인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운영하는 함모씨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함씨는 "결제시 KT멤버십 카드를 내밀면 할인 금액만큼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돼 멤버십카드를 내미는 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하소연이 들려오는 이유는 할인혜택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통3사와 각 사가 맺은 가맹본부(세븐일레븐, GS25, CU 등) 측이 5대 5 비율로 분담하고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을 다시 편의점 등 점주와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측의 분담 비율은 직영점일 경우에는 점주와 본사가 4대 6으로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 65대 3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후 가맹 사업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에 따라 7대 3, 8대 2, 9대 1 등으로 분담 비율이 바뀐다. 상당부분 비용을 영세상인인 편의점 점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서울 강서구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이모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점주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멤버십에 가맹하고 싶지 않지만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측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은 피자·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더욱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커피·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서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30%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에는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허다했다"며 "카페베네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할인행사 비용 전가가 일부 가맹본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진 관행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 따르는 것일 뿐이다. 계약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자르는 삼성전자
보듬는 LG전자

너무 다른 불황 대처법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본사 지원부문 인력 감축을 선택한 반면 LG전자는 수 년을 함께해 온 임직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위기를 돌파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사내유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시장 정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지원부문 인력을 10% 줄이고 내년 일반 경비를 50%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무, 인사, 홍보 등 본사 지원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공개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대신 인사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퇴직이나 전출을 유도해 전체 지원부문 인력의 10%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삼성 관계자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비용 감축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사내유보금은 181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1000억원 증가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원감축을 통해 살사람만 살자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자계급정당'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단체들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계급정당 관계자는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 감소로 인해 임금피크제나 인력감축을 진행할 상황은 아니다"며 "경제 위기 이후 단기순이익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실적 부진으로 국내·외 판매량은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조준호 LG전자 사장은 보다 효율적인 인원 재배치로 위기를 돌파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No en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Siheung city's favoring Shinsegae simon to build its premium outlet in Baegot new city

신세계사이먼, 배곧신도시 입점 특혜 논란 재점화

Shinsegae Simon, one of the subsidiaries of Shinsegae group (the vice-chairman jung young-jin), plans to complete the outlet construction by 2017 in business district of Baegot new city.

Further controversy is expected about 14,5418㎡ of the premium outlet sites that is suspected to be sold off by the mayor(kim yoon-sik) of Siheung city to Shinsegae at a low price.

The merchant association of Siheung city (president Park choon-gi) said that they plan to establish an arrangement committee that opposes the construction of Shinsegae premium outlet in Baegot new city and form a tentatively named. 'Siheung city's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sometime next week. The issue has first been raised in October when Siheung city sold the sites off to Sinsegae group at a ridiculously price. Siheung city formed a special committee in June as a temporary solution to the doubts that were raised by merchants. However, no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The mayor kim yoon-sik only said, at the meeting with merchants in July, that he would make sure that there will not be any disbenefit to the city after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의 계열사 신세계사이먼이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와 손잡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왕동 배곧신도시 사업지구 내 부지 14만5418㎡에 조성을 추진 중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흥시 상인회(회장대행 박춘기)는 7일 배곧신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반대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중 가칭 '시흥시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곧신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헐값 매각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신세계그룹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한 데서 비롯됐다.

이처럼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흥시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6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윤식 시장이 지난 7월 상인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프리미엄 아울렛이 조성된 후 지역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곧 발표된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거대여당의 총재는 총리를 맡게 된다. 의석 400여석에 7개의 파벌이 있는 거대 자민당은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았다.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일본 최고재판소)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 **중국 증시**가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 도입 등 각종 시장 안정책에 힘입어 5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정치

▲ 남과 북이 10월 20~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국민 1인당 1270만원 꼴이다.

▲ **일베 군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군 간부들은 북한 포격도발 사태 당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요 군사정보를 외부로 유출, '일베가 정부발표나 언론보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이 돌았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 811개 지점 중 14.7%인 119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주 의혹을 살 만한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거래 이력을 집중 분석 중이다.

▲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돼 사상자를 낳은 **돌고래호**(9.77t)의 인양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 배가 인양돼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 '성황' 경남도와 중부권 6개 시·군이 공동 개최한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가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내 구인 구직자 등 5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룬 박람회를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에서 QM3란 차명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르노의 캡처가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연비에 유럽인이 선호하는 실용성까지 겸비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QM3의 쌍둥이 모델인 캡처가 주목받고 있다.

▲ 글로벌 TV 시장의 '투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익이 큰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화질 경쟁에 돌입했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TV 기술을 총동원해 화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올해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4000만 갑을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해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000만 갑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 **한샘**(회장 최양하)이 9일로 창립 45주년을 맞는다. 부엌가구로 시작 45년만에 1조원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한샘은 미국과 일본, 중국 진출에 이어 온라인을 통한 동북아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 올 하반기 평택,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다.

▲ **대림그룹**은 올 하반기에 150여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계열사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고려개발, 삼호 등 4개다.

▲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LCD TV 수요가 미국과 중국의 최대 성수기를 맞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 시중은행 중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사회**공헌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北미사일 끝에 매달린 이산가족 상봉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
북 미사일 발사 시 무산 위기
일각선 "남북 간 빅딜 필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철도공사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봉래동 서울역에서 열린 이산가족 초청 '희망풍차 해피트레인' 행사에서 한 미상봉 이산가족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이 10월 20~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이산가족 6만명 전원의 생사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하는 '전화위복'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적십자는 8일 오전 무박2일의 실무접촉을 마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상봉과 같이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금강산 면회소의 크기상 더 큰 규모의 상봉은 어렵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하기로 했다.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이들 중 남북 각각 100명이 최종 상봉 대상자가 된다.

남북은 또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예상외로 24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됐다. 상봉 시기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10월초 상봉을 원했고 북측은 10월 하순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북측 요구가 타당하다. 하지만 당 창건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남측이 일찍 상봉 행사를 갖고 싶었던 이유다.

결국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수용한 셈이다. 또 남측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본회담 개최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주 전인 이달 중·하순 발사 움직임이 관측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도 시작도 전에 무산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전면 경색을 막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당국자 접촉을 곧 재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 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 위기타개냐 미봉책이냐

국유기업 개혁안 곧 발표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공식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개혁안의 목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이미 승인하고,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이름은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으로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간표와 그 핵심 내용을 담았다.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개혁안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관련된 기업, 첨단장비 수출과 연관된 기업, 도태될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할 기업 등 4종류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석유와 금융은 물론 호텔 운영과 치약 제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민간자본의 참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영권이 절대적이라면 경영투명성 재고와 효율증대를 가져오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日 자민당 '전쟁국가' 담합

아베 무투표 재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거대여당의 총재는 총리를 맡게 된다. 의석 400여석에 7개의 파벌이 있는 거대 자민당은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8일 공고돼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당총재에 재선됐다. 공고일에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로 재선된 것은 1997년의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이래 18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총재선거에서 당선됐다. 2006~2007년에도 당총재를 역임한 바 있어 이번으로 통산 3번째다. 당규에는 총재는 연속 2기(6년)까지라고 명기돼 있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은 입후보에 필요한 20명의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해 단념했다. 지난 2012년의 총재선거에서 결선 투표 결과 수상에 패한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장관은 입후보를 보류했다. 안보법안 통과를 위해서다. 안보법안은 참의원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대립후보가 출마해 선거전이 치러지면 20일의 투개표까지 차기 총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야당이 심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 후보끼리의 논의가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자민당 내에 확산돼 당내에서 선거전을 바라는 목소리는 사라졌다.아베 총리는 재선에 따라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참의원에서 표결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송시우 기자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6회까지 지원 가능

9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8일 학원가에 따르면 수시 지원 횟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회로 제한되고 등록과 관계없이 추가합격자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산업대학인 청운대·호원대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경찰대, 사관학교 등은 6회로 제한된 수시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다.

전문가들은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능 등급 조건이 지원 대학 기준에 맞아야 하고 대학별 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월 실시된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통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조언이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해 성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적이 상승세라면 6회 지원 중 소신지원이나 상향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적게는 3개 대학, 많게는 6개 대학을 정한 뒤 자신의 학생부 성적과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등을 점검해 최종 지원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를 골라야 한다.

수능 모의평가 성적별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이면 논술 중심 전형을, 4~6등급이면 적성 또는 면접 중심 전형이 합리적이다.

인문계는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국·영·수 평균 3.0등급, 자연계는 국·영·수·탐 평균 3.5등급이 지원 하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미란 기자 actor@

내년 나라빚 645조… 1인당 1270만원 꼴

국내총생산의 40% 넘어서 '30% 내 관리' 약속 물거품 현 정부 말기 700조 달할 듯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국민 한사람당 1270만원 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쌓이기 시작한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욱 쌓여갔다. 내년까지 임기 4년동안 200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정부는 700조원에 가까운 빚더미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6년 정부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원에서 내년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 원으로 5년간 249조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찜통교실 해소대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와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실태, 군면세유 사용과 관용차량 운용실태, 공적연금 운용실태 등이 담겼다. 이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내년말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40.1%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상 최초다. 2017년에는 41%, 2018년에는 41.1%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채무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됐다. 국세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보면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들어올 돈이 그다지 늘지 않는데 정부가 쓰는 돈은 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돈이 더 들어간 결과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순환론은 계속 반복돼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무성 "심학봉 자진사퇴시켜라"

윤리위 잡음에 직접 나서 설득하라는 지침 내린 듯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8일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도 예정에 없이 들어와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에서 가까운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삼고 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학봉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朴 대통령 前 지역구는 2위 개발 기대심리 투기바람 우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북 경산과 대구 달성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1월에 비해 각각 76.13%와 6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2위의 상승률이다. 경북 경산은 최 부총리의 현재 지역구이며,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까지 15년동안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대구 지역 역시 60.11%, 경북 역시 48.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47% 증가했고 서울은 오히려 2.72% 떨어졌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 지역구와 최 부총리의 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이 이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구 지역은 19년째 1인당 지역별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 아파트 매매가격 폭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있다"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국가안보 위협하는 일베 군인들

軍 내부정보 게시판 올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군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공군의 A중위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북한군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포착된 정보를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같은 날 군 전술체계망(ATCIS) 실행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해병대 B중위를 수사 중이다. B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고, 민간인 친구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일에도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C하사가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의 영내 방송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올려 기무사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군 간부라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으로 군 내부정보를 유출해 직·간접적으로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지난 북한 도발 위기이후 "일베가 정부발표나 언론보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이 돌았다. 일베 회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속보 경쟁이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국방부는 김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송병형 기자

檢 "成-李 만남 입증할 문건 있다"

증거목록 두고 공방 "직접 와서 확인하라"

검찰이 이완구(65·사진) 전 총리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만남을 입증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를 발견했다"며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중 성 전 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증거 목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외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만약 있다면 최소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숨기는 자료는 없다. 변호인이 직접 와서 충분히 확인해라"면서 각을 세웠다.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발생한 그 때(2013년 4월 4일)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전후로 확보한 대화 자료가 있다면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카톡 대화 중) 이 건과 관련 없는 제3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비서진)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증인 보호를 위해 열람 허용 여부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대해 전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이 유포되거나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면서 "카톡 대화와 녹음파일에 조작 의혹 여부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총리는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부탄가스 중학생' 검찰 송치

'부탄가스 중학생'이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15)군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방화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군에게 현재 재학 중인 서초구 중학교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쯤 과거에 다녔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000원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해 이군이 6월 26일 서초구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이를 발견한 교사에게 제지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서초구 중학교에 방문해 6월 사건 당시 이군이 불을 지르려 할 때 사용했던 물건 등을 임의제출받아 이러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군은 추가 조사에서 서초구 중학교에서 분무기와 호스, 물통으로 직접 만든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불을 지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군이 서초구 중학교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했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군을 이날 오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미란 기자

노사정위 앞 연좌농성 돌입한 민주노총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며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총은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노사정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사정 '4인 대표자회' 실시 합의

대타협 여부 조율키로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4인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간사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의하고, 노사정 간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르면 이날 열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앞두고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타협 여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 지 합의되느냐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두 사안은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포함된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을 유보하는 만큼 대타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양대 쟁점과 관련,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양대 핵심 쟁점을 어떻게 타결짓느냐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노사정 간 이견이 큰 만큼 대타협 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장기 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가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인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43건 대비 2015년 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전체 2420건 중 42.5%인 102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 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됐다.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2128일)째 심리중이다.

서 의원은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해경이 8일 오전 제주 추자도 추자교 인근 해안에서 돌고래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한편 '돌고래호'의 조속한 인양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돌고래호 조속 인양 어려워

선주 '인양 의사' 절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돼 사상자를 낳은 돌고래호(9.77t)의 인양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 배가 인양돼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돌고래호 선주 김모씨(서울)와 제주도에 이 배의 조속한 인양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의 인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선주의 인양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 인양(제거)은 우선 선주가 하도록 돼 있고, 선주가 인양을 못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양을 하고 구상권을 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엄밀한 행정용어로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경의 인양요청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 시점에서 인양을 해도 되는 지 등을 해경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이 선박 사고는 해경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해경이 선체는 물론 비품과 목록까지 인계인수를 해 줘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인계인수를 해 주더라도 인양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구조업체가 지정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선주가 오늘이라도 당장 인양을 하겠다면 인양을 할 수 있다.

돌고래호(9.77t)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됐다. 7일 현재 이 배에 탔던 낚시객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미란기자

檢, 신상수 영장 청구

<리솜 회장>

'농협 특혜대출' 의혹… 대출 로비 수사로 이어질 수도

검찰이 농협 특혜대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을 받고 있는 신상수 리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에게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에서 총 1649억원을 차입했고 이 가운데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기업 생존에 의문이 제기되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자금을 수혈받아 대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대출 로비를 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의혹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의 신병 확보가 애초 검찰이 목표했던 대출 로비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회장은 1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단서를 잡고 7월 29일 리솜리조트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7일과 31일 두차례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연꽃 담기' 절기상 백로(白露)인 8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연꽃단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연꽃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뉴시스

추석성수품,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저렴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평균 18%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6~7인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는 24만 6496원, 대형유통업체에서는 30만 2119원이 필요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18% 정도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장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50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10곳의 추석 제수용 성수품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추석에는 사과와 배, 밤, 대추의 출하량이 많아 과실류는 지난해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배추와 무, 파, 국내산 참조기는 생산량·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황이 좋은 사과와 배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29~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풍작이었던 밤과 대추 역시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배추는 지난해보다 39% 가격이 올랐고 강원도에서 주로 출하되는 무와 대파 가격 역시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46~5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4일과 21일에도 다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주요 성수품의 가격 자수는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에서 볼 수 있다. /유선준 기자

檢·警, 메트로신문사 편집국 압수수색

김성태 의원 사진 게재 고소건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메트로신문이 지난 7월 10일자 4면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2단 상자 기사에서 박기춘 의원 대신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메트로신문사 회장과 사장, 강세준 편집국장,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의 관련 사진이 출고된 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컴퓨터나 문서 등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않았다.

메트로신문측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문 편집·제작과 관련된 기자 등 직원 명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메트로신문사는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이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은 즉시 편집상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관련 사진 오류'란 제목의 정정 기사를 온-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다.

아울러 해당 온라인 기사에 실린 김 의원 얼굴 사진을 삭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쯤에는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경위를 소명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김성태 의원 사진이 실린 것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사진 원판에 김 의원과 박기춘 의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누군가가 두 사람을 혼동해 박 의원 대신 김 의원의 얼굴 사진을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두고 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샘 H₂-Dispenser®

추석맞이 가족사랑 이벤트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100세 시대
100일 체험
100분 한정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벤트는 9월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백년건강 수소수가 답이야

| 전속모델 |
가수 윤수현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수소샘 검색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_2O)에서 산소(O_2)와 수소(H_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12화 폭행치사와 긴급피난>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대구고법 1987.9.16, 선고, 87노787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배동칠은 전 여친 도미자를 정리?하고 현재의 함주리와 밀월여행을 나왔는데 과연 그의 의도는 ......

결국 음모를 들키고만 배동칠, 함주리는 오열 속에 독기를 드러내는데 결국...

배동칠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함주리의 목을 휘어감고 겨우 물밖으로 끌어 냈지만 결국 숨지고 만다.

이유 있는 반등?… LCD 수요 회복 관건

LG디스플레이株, 연저점 찍고 2주새 20% ↑
中 구매 비율 1년 만에 10%대→30%대 급증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LCD TV 수요가 미국과 중국의 최대 성수기를 맞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감소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전날 대비 100원(0.4%) 오른 2만5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4일 장중 2만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주가는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상승랠리를 이어가 현재까지 20% 이상 뛰었다.

올 들어 LG디스플레이 주가는 반등세로 돌아서기 전인 지난달 24일까지 39% 이상 떨어졌다.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발표도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LG디스플레이 주가 급락은 우선 글로벌 디스플레이업계의 경쟁과다에서 비롯됐다. LCD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 여기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업체인 BOE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증설 소식도 주가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8월 저점을 찍은 이후 분위기가 역전되는 모양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함께 OLED TV를 내놓으며 시장 선점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영업 성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도 주가 반등에 한몫했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TV 패널 가운데 중화권 업체가 구매하는 비율은 1년 만에 10%대에서 30%로 급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공장(CA법인)의 생산능력을 현재 월 9만장에서 내년 말까지 12만장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국 TV 제조사들이 심천 등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어 현지 생산체제가 관세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디스플레이 코팅 장비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에너지와 비용 부문에서 대대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8일 "초음파를 활용한 대면적 디스플레이 코팅 장비인 '초음파 플로팅 코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8세대 제조 공정에 도입할 경우 37%의 비용 절감과 7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 침체로 LCD TV 수요가 감소해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3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면서도 "연말까지 TV 패널 가격 하락은 지속되지만 하락폭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과 서유럽 경기 회복으로 선진국 시장에서의 TV 판매량이 증가해 TV 재고 소진이 기대된다"며 "현재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저평가돼 있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20% 가량 상승했다"며 "그러나 아직 LCD TV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 신흥 국가 통화 약세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IT 수요는 상당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중대형 LCD 공급 증가율이 전년 5.6%에서 8%로 높아진다는 점도 향후 디스플레이 업황 수급 전망에 부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융,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최재우 후원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국가대표 최재우(21·한국체대) 선수와 후원 조인식을 하고 있다. 최재우는 신한금융그룹이 2011년부터 비인기종목 유망주를 발굴·지원하는 '신한 루키 스폰서십' 프로그램의 대상 선수로 선정돼 후원받게 된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은행 '사회공헌사업비' 가장 인색하다

당기순익 1위·공헌비 최저
"은행권의 자성 필요할 때"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신한은행이 사회공헌사업비에는 시중 은행들 가운데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의 사회공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사회공헌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127억원(순이익 대비 0.9%)으로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회공헌비를 집행했고 국민은행 458억원, 중소기업은행 356억원, 외환은행 135억원순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4298억원을 달성해 업계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88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중소기업은행은 7145억원, 외환은행은 4879억원, 우리은행이 45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은행권의 전체 사회공헌사업비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18개 은행은 지난 2012년 4258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했다. 하지만 다음해 3738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됐고, 지난해는 2092억원으로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사업비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18개 은행 수익 가운데 4.77%이던 비율은 지난해 3.46%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당기순이익 상위 5위권 은행의 사회공헌사업비 지출이 저조하다"며 "은행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보배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릴 듯"

경제 어려움 계속돼 추가인하 가능성 있어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고 내수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HSBC와 BNP파리바,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3개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는 4분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빠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7월과 8월에는 동결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8월 수출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해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7%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BNP파리바도 이번 달이 아니라면 연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의 프레드릭 뉴먼 아시아 리서치 담당 공동 책임자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은 추가 완화가 타당함을 의미한다"면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낮아 한은은 거의 3년 동안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8일 "한은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9월에 인하되지 않더라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고 금리 인하시 환율 상승(통화가치 하락) 위험도 아직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DBS는 경기회복 전망이 예상보다 약해졌다면서도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는 마무리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DBS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차기태 기자 folium@

수도권 남부, 하반기 3만6000가구 쏟아진다

**교통망 확충 서울 출퇴근 용이
산업단지 조성 개발수요 풍부
건설사 분양 물량 전년比 2배**

현대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평택'의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단지는 청약 결과 평균 4.0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현대건설 제공

올 하반기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건설업체의 분양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평택, 용인, 화성 등지에 분양 예정인 가구는 총 3만6504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물량의 2배가량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은 올 하반기에 11곳, 총 1만25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용인은 각각 8곳에서 총 1만4656가구가, 화성은 10곳에서 총 9267가구가 각각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에서는 대림산업이 신흥도시개발지구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평택용이'가 대표적이다. 이달 분양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0개동, 전용면적 72~99㎡ 총 1348가구 규모다. 10월에는 제일건설이 '평택 장당동 제일풍경채 3차'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6·84㎡ 총 448가구 규모다.

용인에서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도시개발사업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44~103㎡, 총 6800가구 규모로, 단일 분양 가구수로는 역대 최대다.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73㎡~149㎡ 768가구 규모로, 앞서 공급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등과 같이 3200여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지난해 대형 물량이 많았던 동탄에 이어 송산신도시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다. 먼저 동탄2신도시에는 금강주택이 오는 10월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4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4㎡ 10195가구 규모다.

같은 달 중흥종합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 B-1블록에 '화성 남양 시티 프라디움'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813가구 규모다.

송산신도시에서는 '송산그린시티 1차 EGthe1', 송산그린시티 금강센테리움 센트럴파크,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등에서 총 2210가구가 대기 중이다.

이처럼 건설사가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유는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택의 경우 현재 고덕첨단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이주와 주한미군 이전, 신세계복합쇼핑몰 등의 개발호재가 뚜렷하다. 여기에 오는 2016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을 비롯해 수원~인덕원 간 복선전철(2019년 개통예정)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평택은 최근 미분양주택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평택의 미분양주택은 80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33가구)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용인은 수요자의 증가로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7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비 용인(4.15%), 수원(4.02%)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3.67%)과 경기도(3.76%)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다.

용인은 전세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용인의 전세가율은 73.9%로, 경기도 평균(72.7%)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70.3%였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의 경우 최근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잇따르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몰리고 있다"며 "산업지구 계획 등 각종 개발호재가 몰리고 있는 점도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투자수요도 많은 만큼 주변 개발호재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상업시설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상가 분양

**원스톱 쇼핑·소규모 창업
3.3㎡당 3000만원 초반대**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의 상업시설을 분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일반상업3블록 1-2와 1-3부지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하 6층~지상 19층, 상업시설 138실(지하 1층~지상 4층), 오피스텔 434실 규모다.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개통할 예정인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과 트램(예정, 노면경전철)정거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송파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헌릉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남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상업용 건물에 필수적인 먹거리와 생활편익시설로 구성됐다. 3, 4층은 클리닉시설로 구성해 원스톱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전면과 후면에는 각각 폭 43.5m, 20m의 도로가 위치해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소형 위주의 면적 구성으로 소규모 창업과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 초반대다. 최소 1억6000만원에서 평균 6억~7억원 가격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우남역과 트램을 도보로 누리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풍부한 유동인구가 예상돼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6-13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한화건설, 오늘 '동래 꿈에그린' 1순위 청약

전용면적 84㎡ 732가구

한화건설은 9일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공급하는 '동래 꿈에그린'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732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 84㎡A 366가구 ▲ 84㎡B 366가구다.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있다. 1·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과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인근에 있다. 복선전철인 동해남부선의 동래역(2016년 개통 예정)을 통해 해운대~센텀시티~동래~부산시청 등 부산 핵심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동래고, 동인고, 혜화여고 등 동래구 내 명문학군이 인근에 있다.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약 14㎞ 규모의 온천천 시민공원과 조성될 예정인 3600여평의 수민어울공원이 인접해 있다.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돼 통풍과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강진혁 한화건설 소장은 "지난 2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뒤 주말까지 3만여명이 다녀갔다"며 "부산 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동래구에 들어서는 데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 4베이로 구성돼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이며 계약은 21~23일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129-7 홈플러스 맞은편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대림그룹, 하반기 신입 150명 공채

대림그룹은 올 하반기에 150여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계열사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고려개발, 삼호 등 4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2016년 2월)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만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21일까지 대림그룹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daelim.co.kr)에서 받는다. 서류전형 통과자는 10월 9일 인적성 검사 이후 1차 면접(실무진·팀장), 2차 면접(경영진 면접), 신체 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모집분야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의 경우 ▲토목 일반 ▲건축 일반 ▲플랜트 사업관리 ▲플랜트 설계 ▲재무 ▲안전 등 12개 분야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3개 분야, 고려개발은 ▲건축 일반 ▲토목 일반 ▲경영 일반 등 5개 분야 삼호는 ▲건축 일반 ▲토목 일반 ▲경영 일반 등 7개 분야다.

대림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채부터 직무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춰 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에 이르는 선발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며 "서류전형에서는 해외경험 등 불필요한 스펙 항목을 폐지하고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면접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입사지원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석 기자

궁극의 컬러 구현… 삼성·LG, 화질경쟁 후끈

프리미엄시장 주도권 경쟁
고화질 전략 화질개선 총력
OLED TV로 시장 재편 전망

'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글로벌 TV 시장의 '투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존을 위한 화질 경쟁에 돌입했다. 수익이 큰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TV 기술을 총동원해 화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HDR는 밝기를 높이고 명암비를 대폭 향상시켜 생생한 영상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우선 양사는 HDR 콘텐츠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사들과 협력해 HDR 영상을 송수신하는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전송 방식으로 고객들이 최적화된 HDR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G 울트라 올레드 TV로 HDR 콘텐츠를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아직까지 HD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고선명(UHD) TV가 확산되면서 국내 TV제조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해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글로벌 TV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 TV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세를 불리고 있다. 엔저에 힘입은 일본 업체들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TV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저가 TV 시장에서는 중국·일본 업체와의 차별성을 갖기 힘든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액정표시장치(LCD)에 퀀텀닷 필름을 입혀 색재현성을 높인 SUHD TV를,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업계는 향후 O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라이트 없이 각각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TV가 HDR 영상 등 고화질 콘텐츠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LED TV 생산을 잠정 중단한 삼성전자도 2~3년 내에 다시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55인치 OLED TV 이후 관련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OLED TV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TV용 OLED 패널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OLED TV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채용방식 바뀐 삼성… 취준생 "까다롭다"

직무적합성평가 통과해야 GSAT 응시 가능

2014년 1월. 취업준비생 A씨는 낮은 성적을 받았던 강의를 재수강해 학점을 3.0(4.5만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번 계절학기의 목표다. 학점 3.0을 넘고 영어회화 자격증 기준만 충족하면 삼성그룹의 공채 전형 중 직무적성평가(GSAT·옛 SSAT)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점과 어학 성적만 충족하면 SSAT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상반기가 마지막이었다.

전면 개편된 삼성그룹의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공채가 지난 7일 시작됐다.

올 하반기 삼성 공채는 '직무적합성 평가-GSAT-실무면접-창의성면접-임원면접'의 5단계로 바뀌었다. 취준생들은 바뀐 삼성그룹의 채용제도가 낯설고 까다롭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전까지 직무적합성 평가는 학점과 계열사·직군별 어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SSAT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삼성은 학점 제한을 없애는 대신 직무적합성평가에서 지원자의 전공과목 이수내역, 활동경험, 에세이 등을 평가해 GSAT 응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지원자들은 회사와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한다.

에세이 항목은 삼성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700자), 본인의 성장과정(1500자), 최근 중요한 사회이슈와 이에 대한 견해(1000자) 등 총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취준생 김모씨는 "예전에는 한 학기에 1번은 인적성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해야 볼 수 있어 주위에서는 못 볼 까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굳이 GSAT로 인적성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SSAT 응시 기회가 사실상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SSAT는 인적성 공부의 시작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직무적합성평가를 통해 GSAT 응시 인원을 선발하는 것과 관련) SSAT를 운영하면서 행시·사시처럼 준비하거나 관련 학원이 생기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시험 보는 대상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i71@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오른쪽부터)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우영 은평구 구청장, 정창익 은평구의회 의장이 8일 서울 서울 은평구청에서 어린이들과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삼성 제공

삼성, 소외층에 한가위 인심 전한다

11일부터 추석 맞이 봉사
10억원 상당 부식품 전달

삼성은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2주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추석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임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은 양로원, 지역 아동센터 등 전국 1624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3만6616세대를 방문해 10억원 상당의 부식품세트(밀가루·간장·식용유·참기름 등 8종)를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은평구청에서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주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총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해 지역 독거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고 전통 민속놀이와 명절음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홀로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는 "가족도 없이 명절을 쓸쓸히 지내는데 삼성에서 명절마다 선물도 주고, 음식도 만들고, 외로운 노인을 생각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삼성 각 계열사도 '추석 희망나눔 봉사활동' 기간에 지역의 양로원과 독거노인 등을 찾아 나눔활동을 전개한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임직원들은 14~25일 용인·화성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곳을 방문해 부식품세트를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나선다. 또 부식품세트와 함께 용인증앙상인회와 연합해 지역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 3000만원어치를 추가 전달한다.

삼성증권은 본사 및 전국 지점 인근의 100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부식품세트와 양평 양수리 자매마을에서 구매한 배를 전달했다.

한편 삼성은 2008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현재까지 총 145억원을 지원했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국내 LED조명시장 공략 시동
라인업 강화· 유통 채널 확대

LG전자는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수명은 늘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3종을 9월 중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LG전자가 출시하는 조명은 'LED 방등' 1종과 'LED 다운라이트' 2종이다.

'LED 방등'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방과 거실 등 생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LG전자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거용 LED 조명이다. 100lm/W(루멘/와트)이상의 높은 광효율을 구현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비율은 41% 적고, 수명은 5배 이상 길다.

LG전자 모델이 LED조명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밀폐형 구조로 광원 내부로 벌레나 먼지 등의 유입을 막아 내부 오염을 최소화했고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다.

'LED 다운라이트'는 복도, 사무실 등 사무공간에 특화된 조명이다. 제품 몸체에 금속 재질을 적용한 방열기술을 채택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높고, 수명은 3.5배 이상 증가했다. 또 눈부심 차단구조를 도입해 균일한 광분포 및 조도를 구현한다.

LG전자는 LED 조명의 전국 유통망도 확대했다. 전국 주요 조명 전문점에서 주택 및 사무공간용 LED 조명 신제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괴물연비’ QM3, 유럽서 캡처로 인기몰이

합리적 차량에 선택 집중
올 상반기 판매수 23% ↑
9월 할인 최대, 구매적기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에서 QM3(사진)란 차명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르노의 캡처가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 유럽의 소비 패턴을 관통하는 트렌드인 합리성에 부합하는 모델이라는 평가 덕분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불경기인 유럽의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 차량들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연비에 유럽인이 선호하는 실용성까지 겸비한 모델이 주를 이룬다.

치열한 시장 가운데 QM3의 쌍둥이 모델인 캡처가 있다.

캡처는 올해 상반기 유럽 내 누적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 유럽 상반기 베스트셀링 탑 10 모델 중 파사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캡처의 연비는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럽 복합연비 기준으로 볼 때 1.5 dCi 디젤 엔진과 수동변속기를 탑재한 캡처는 100㎞ 운행에 3.6L의 기름이 소요된다. 국내 표기로 환산해보면 약 27.8km/ℓ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같은 1.5L 디젤 엔진에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QM3의 연비는 리터당 18.5㎞(복합연비 기준)로 동급 최강의 연비다. 표기된 공인연비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연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말까지 듣는 ‘괴물연비’ 모델이 캡처라고 르노는 설명한다.

주행성능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포뮬러원(F1) 레이스를 통해 검증받은 르노의 1.5 dCi 엔진과 독일 게트락사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는 캡처의 주행성능은 90마력이다.

아담하지만 실용성 넘치는 차체에 딱 들어맞는 캡처의 드라이브트레인은 패밀리카로서 부족함이 없는 운전의 재미를 선사한다고 사측은 전했다.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하드코어 오프로드나 레이싱을 위한 차량이 아닌 일상에서 누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으로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펑키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캡처는 SUV와 해치백 차량을 크로스오버한 소형 SUV 모델로 내·외장 컬러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럽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글로브박스 대신 서랍 형태의 넉넉한 12리터 적재 공간의 매직 드로어, 지퍼로 간단히 분리해 쉽게 세탁할 수 있는 탈착식 지퍼형 시트 등 실용성을 구현한 인테리어 등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QM3 역시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단일 수입모델 중 유일하게 3만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도 QM3의 뛰어난 연비와 검증받은 주행성능, 감각적인 유러피언 디자인에 후한 점수를 준 셈이다. 여기에 수입차임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국내차와 동등한 수준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실용적인 소비와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부분이다.

QM3는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발광다이오드(LED) 주간주행등 △스마트카드 시스템 △엔진스타트버튼 △6.5인치 오디오비디오(A/V) 시스템 △타이어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등 기능을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했다.

또 트림에 따라 후방 카메라와 T-맵 내비게이션,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최상의 그립을 발휘하도록 돕는 그립컨트롤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 기능을 채택했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이달 선호도가 높은 컬러 트림에 동일한 50만원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43만~45만원의 개소세 인하분에 150만대 판매기념 80만원 할인을 더해 소비자는 최대 175만원까지 저렴하게 QM3를 구매할 수 있다.

사측은 “9월은 특별히 데칼 액세서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QM3 꽃단장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QM3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며 이달이 QM3 구매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볼보 “연간 4000대 이상 판매할 것”

크로스컨트리 출시행사
‘S60’ ‘XC90’도 선보일 것

8일 경기도 가평군 아난티클럽에서 이윤모 볼보 사장이 크로스컨트리 옆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볼보 제공

“올해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4000대 이상 판매할 것이다. 크로스컨트리도 올해 150대 이상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사장은 8일 경기도 가평 아난티클럽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V60) 출시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간 목표 판매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출시를 결정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보며 수급물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10월에는 S60 크로스컨트리, 내년 6월 이후에는 2017년형 XC90 출시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연간판매 1만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된 크로스컨트리는 올해 두 번째로 출시된 크로스컨트리다.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왜건을 기반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주행성능이 더해졌다. 기존 모델 대비 지상고를 65㎜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1월 해치백을 기반으로 한 크로스컨트리(V40)가 출시된 바 있다. 10월 중순께 세단을 기반으로 한 크로스컨트리(S60)까지 출시되면 ‘크로스컨트리 3종’이 완성된다.

볼보는 크로스컨트리 출시를 통해 4륜구동 라인업을 강화했다. 고성능 버전의 T5 AWD(상시4륜구동)는 최고출력 254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힘을 낸다. D4 AWD는 최대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2.8kg·m의 힘을 낸다.

크로스컨트리는 3가지 트림 D4, D4 AWD, T5 AWD로 판매된다. 판매가격은 5220만~5550만원이다. 현재 예약구매가 가능하다. 출고는 공차중량·연비·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만식 볼보 세일즈마케팅상무는 “크로스컨트리는 V60 R디자인과 가격대가 비슷해서 판매 간섭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크로스컨트리 차량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고 컨셉이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폭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 볼보 측은 크로스컨트리와 R-디자인의 가격이 5000만원 대로 비슷하지만 크로스컨트리는 캠핑·레저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 R디자인은 주행성능·속도를 즐기는 소비자들로 수요가 나눠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볼보는 주력 차종인 S60, S80, XC60 등을 바탕으로 8월 33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월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26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다. /경기 가평=정용기 기자 yonggi@

강력한 힘… 오프로드도 거뜬

시승기

‘뉴 파워 렉스턴W’
레저차량으로 ‘제격’

렉스턴W는 최고출력과 최대토크가 기존모델 보다 각각 14.8%, 11.2% 향상돼 강한 힘으로 재 탄생했다.

2.2ℓ e-XDi220 디젤엔진은 최고출력 178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뿜어낸다.

7일 렉스턴W를 몰고 오프로드 코스가 포함된 경기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 일대 31km를 달려봤다. 1400~2800rpm의 낮은 회전 구간에서 최대토크가 구현돼 출발·가속 시 힘 있게 치고 나갔다.

2.2ℓ e-XDi220 디젤엔진은 저속토크(LET) 방식으로 개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에서 쓰인 7단 자동변속기 장착돼 변속품질도 인상적이었다.

100km/h이상의 고속주행에서도 답답한 느낌 없이 차는 쭉 뻗어나갔다. 소음·진동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이 다소 가볍게 움직여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묵직한 느낌은 부족했다.

일반도로 주행 후 확인한 연비는 9km/ℓ였다. 렉스턴W의 복합연비는 2륜에서 12km/ℓ(도심 10.8km/ℓ, 고속13.9km/ℓ)다. 4륜에서는 복합 11.6km/ℓ(도심 10.5km/ℓ, 고속 13.3km/ℓ)다.

돌, 흙이 깔린 비포장도로에서 4륜 모드로 전환하자 비포장도로 오르막을 가볍게 치고 나갔다. 내리막에서 HDC(경사로 자동주행 장치)기능을 켜면 경사도에 따라 5~30km/h의 속도로 자동 주행한다.

또 차량자세 제어시스템(ESP),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HSA), 타이어공기압 자동감지시스템(TPMS) 등이 적용돼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렉스턴W의 가격은 2818만~3876만원이다.

/경기 가평=정용기 기자

차원이 다른 **배곧신도시** 한 컷

이 모든 프리미엄을 다~담았다!

※ 전세대 풀옵션 빌트인 제공 및 42인치 TV제공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 만족! 투자는 200% 만족!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한국경제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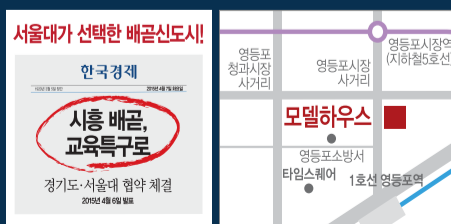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문의전화
02)6334-9395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청약방법 |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 청약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SKT, 코맥스와 손잡고 스마트홈 시장 확대

비디오폰·도어락 등 홈기기 연동 제휴
기술혁신 추진·글로벌 개척 방안 모색

SK텔레콤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5'에서 국내 최대 홈IoT(사물인터넷) 전문기업인 코맥스와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관련 사업제휴를 7일 체결했다. 삼성·LG전자와의 스마트홈 제휴 발표에 이어 두번째다.

코맥스는 1968년 창업 후 인터폰, 비디오폰 뿐만 아니라,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1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영상통신, 시큐리티 기술 중심의 글로벌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SK텔레콤은 코맥스의 홈 기기들을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하고 공동으로 홈 IoT 기술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오랜 기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양사는 이르면 12월 연동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IFA 2015에서도 SK텔레콤은 부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코맥스의 연동 기기를 전시하는 등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개척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기업을 포함한 최다 제휴기업·최다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연동기기를 연내 20개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3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5의 SK텔레콤 전시 부스에서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TF장(왼쪽 두번째)과 변우석 코맥스 부사장(세번째)이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변우석 코맥스 부사장은 "코맥스는 국내 최대의 홈 IoT 전문기업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B2B 사업 특성상 고객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 SK 텔레콤과의 사업 제휴를 계기로 고객 인지도 향상과 함께 국내외 시장 공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국지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한국지엠은 지난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펼친 기업의 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 'A Driving Force'를 8일 발간했다.

한국지엠이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다. 보고서는 ▲고객 만족 ▲제품 안전성 ▲친환경 제품(연비 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 ▲기업 문화 ▲친환경 사업장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공헌 ▲기술 혁신 등 글로벌 비전에 입각해 각 분야별 사업 특성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분야별 전략과 성과는 쉬운 용어 선택, 풍부한 그래픽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과 사회공헌 전문기관인 더씨에스알(THE CSR)의 제3자 검증과정을 거쳤다.

보고서는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 한국지엠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U+, 홈플러스에 '홈 IoT 체험존' 구축

'안전·절감·편리' 3색 테마
8종의 홈 IoT 제품 선봬

LG유플러스가 홈플러스와 손잡고 홈플러스 매장에 고객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IoT@홈' 체험존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체험존은 IoT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전' '절감' '편리' 등 3가지 테마의 가정집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총 8종의 홈IoT 제품이 선보이게 된다.

체험존에는 말로 끄는 스위치, 가스락, 창문을 통한 침입을 알 수 있는 열림 감지 센서와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IoT 플러그 등이 구비된다.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구에서 7일 LG유플러스 사내 모델들이 자사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매장 내 여성 고객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방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IoT 서비스를 설계해주고 서비스 시연과 상담까지 해주는 'IoT 마스터'를 체험존에 배치해 고객의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홈플러스 춘천점과 전주 효자점을 시작으로 체험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한화 커뮤니케이션 팀장에 최선목 도시개발대표 선임

한화그룹은 신임 커뮤니케이션 팀장에 최선목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부사장·사진)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선임된 최 부사장은 2000년대 초중반 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신임 팀장은 1957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출신이다.

최 신임 팀장은 1984년 6월 한화에 입사한 이후 계열사를 거쳐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한화도시개발 대표는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이 겸직하게 됐다.

/정용기 기자 yonggi@

기아차, 장애인 가족에 추석연휴 '카니발' 차량지원

22일까지 이용자 모집

기아자동차가 추석 기간(24~30일) 장애인 가족들에게 '올 뉴 카니발 이지무브'(사진) 차량을 지원한다.

기아차는 22일까지 장애인이 운전·탑승할 수 있게 제작된 특수 차량을 이용할 가족을 모집한다. 이 중 선발된 가족에게 올 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10대와 유류비 등 7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은 모집 기간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는 신청자의 장애등급과 소득수준, 신청사연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가족을 선발한다.

당첨자는 23일 초록여행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정필 기자

홈쇼핑 '셀럽' 마케팅 치열

패션 비중 최대 40% 확대 주말 방송 셀럽 전진 배치

매출 신장률은 기대 이하 영향력있는 인물 영입 관건

GS홈쇼핑의 패션 방송프로그램인 쇼미더트렌드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GS 쇼호스트 동지현, 스타일리스트 김성일, 방송인 김새롬. /GS홈쇼핑 제공

홈쇼핑 업계가 패션 부문의 방송 비중을 높이고 스타일리스트, 모델 등 패션 피플과 유명인(셀럽)등 방송 출연진을 다양화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션 상품의 방송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패션 방송 비중은 2009년 23%에서 지난해 40%까지 높아졌다.

GS홈쇼핑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쇼미더트렌드'를 방송 중이며 최근에는 패션 전문 프로그램인 '더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 피플로는 방송인 김새롬이 쇼미더트렌드에, 스타일리스트 김성일이 쇼미더트렌드와 더컬렉션에 고정 출연 중이다.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의 패션 상품 방송 비중도 지난해 기준으로 36%에 달한다. 올 상반기 패션부문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약 11% 수준을 기록했다. 패션피플로는 대표적으로 스타일리스트 정윤기가 있다. 정윤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방송되는 '셀렙샵'에 출연 중이다. 이외에도 수요일에는 스타일리스트 도윤범이 오전 8시 15분부터 진행되는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현대홈쇼핑(대표 강찬석)은 지난해 초부터 패션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 상반기 패션 상품 방송 편성 비중은 3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하반기에는 방송 비중을 32.5%까지 확대한다.

패션 피플로는 스타일리스트 김하늘과 서수경이 있다. 김하늘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40분부터 새벽1시까지 진행하는 패션 방송 'S.O.S', 서수경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스타일몬스터'에 출연한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의 패션 상품 방송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 수준이다. 패션 피플로는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와 박만현이 있다. 박만현은 토요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방송하는 '플레이샵', 김우리는 토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새벽1시까지 스타 쇼핑호스트 정윤정이 방송하는 '정쇼'에 출연한다.

롯데홈쇼핑은 하반기 단독 브랜드 론칭과 해외 유명 브랜드 직매입 등의 방식으로 패션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패션 피플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신뢰감을 주고 워너비 이미지도 심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영향력있는 패션 피플의 영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삼성물산 패션부문, 온라인몰 'SSF샵' 오픈

의류·잡화 통합 매장 모바일 시장 본격 진출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은 의류·잡화브랜드 통합 온라인 매장인 SSF샵(www.ssfshop.com)을 열고 온라인과 모바일 패션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SSF샵은 빈폴·에잇세컨즈·갤럭시·구호·로가디스 등 그간 나뉘어 있던 패션부문의 18개 주력 브랜드를 모아놓은 온라인 매장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다음 달 초 서울과 수도권 지역부터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상품을 찾아가거나 교환·반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품절 상품이 다시 들어오면

원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자의 상품 선호도를 분석해 온라인 전용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롯데그룹 '기업문화개선위' 다음주 출범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8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발족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에 이은 두 번째 혁신조직이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위원 10여 명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TF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롯데정책본부장인 이인원 부회장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 이경묵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은 인사조직, 여성, 공정거래, 기업,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롯데 내부 경영진과 같은 수로 만들어졌다. 롯데는 이를 통해 기업문화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 등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오성엽 롯데케미칼 전무,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상무, 김경호 롯데닷컴 상무 등이다. /박상길 기자

7월 담배 판매량 3억4000만갑

가격 인상전 판매량 근접

올해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4000만 갑을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해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000만 갑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담배판매량 및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2월 1억6000만 갑 수준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6월 2억8000만 갑을 기록하고 지난달에는 3억 갑을 넘어섰다.

사실상 담뱃값 인상 이전 판매량으로 회복된 수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의 당시 2015년 판매량을 28억8000만 갑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총 담배판매량은 총 21억갑에 달하며 이 같은 회복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총 33억갑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

수입 쌀에 국내산 쌀 휘청한다

'밥쌀용 쌀 저가 판매' 논란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산지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 도입현황 및 국내쌀값 변동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 밥쌀용 쌀이 저가로 판매될 경우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아모레퍼시픽 '방판원 배치' 갑질 의혹

특약점 매출 손실 688억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방문판매특약점 영업사원을 직영점 등에 임의로 배치하면서 소상공인인 특약점의 매출 손실이 688억원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몇 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롯데,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 3분의 1 넘어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8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곳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박상길 기자

'노스페이스 에디션' 할인 판매 행사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대표 성기학)는 13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사회공헌 활동인 '노스페이스 에디션'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 의류와 신발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자립마을을 위한 식수 사업에 기부하는 지원 프로젝트다.

한섬 '랑방 컬렉션 액세서리' 론칭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업체인 한섬(대표 김형종)은 프랑스 브랜드 '랑방'과 손잡고 새 잡화 브랜드 '랑방 컬렉션 액세서리'(LANVIN COLLECTION ACCESSORY)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랑방 컬렉션 액세서리는 지난해 3월 론칭한 자체 핸드백·액세서리 브랜드 '덱케'(DECKE)에 이은 한섬의 두 번째 잡화 브랜드다.

한샘의 꿈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한샘 창립 45주년

1970년대 부엌가구로 시작
1조원대 매출… 업계 1위

美·日·中·동북아까지 진출
디자인 개발·차별화에 주력

한샘 플래그샵 목동점. 한샘이 9월 9일 설립 45주년을 맞았다. /한샘 제공

한샘(회장 최양하)이 이달 9일로 창립 45주년을 맞는다.

1970년대 부엌가구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한샘은 45년이 지난 지금 연 매출 1조3000억원의 업계 1위 중견기업이다.

한샘은 주택건설이 호황을 누리던 1970년대 초 부엌가구 전문기업으로 출발하면서 스테인리스와 타일이 전부였던 국내 부엌가구 시장에 최초로 멜라민 상판을 도입했다.

기존 '싱크대'라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 키친', '인텔리전트 키친'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새로운 부엌문화를 선도했다.

1980년대 초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고가브랜드 '유로'(Euro)를 선보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저가 고객의 저변확대를 위해 '메이컵'(Make-Up)브랜드를 출시했다.

이후 찾아온 외환위기에 한샘은 가격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2001년 20평형대를 위한 '밀란'(Milan) 브랜드를 출시, 연간 5만세트 이상을 판매했다.

이듬해 2002년 한샘은 증권거래소에 회사를 상장했다. 상장 당시 주당 6000원이었던 주가는 2015년 9월 8일 기준 29만원이다.

2006년 1월 출시해 현재까지 한샘의 주력 상품인 프리미엄급 부엌가구 브랜드 '키친바흐'(Kitchen Bach)는 국내에서는 수입부엌가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다.

1997년부터 도입한 한샘의 홈인테리어 패키지는 단순히 가구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집의 넓이·모양·고객의 취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다. 홈인테리어 패키지는 2013년 기준 매출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샘은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1985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91년 일본 현지법인, 1996년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미국법인은 뉴저지의 부엌가구 캐비닛 공장과 맨하탄, 보스턴 2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법인은 오사카와 동경에서 시스템 키친과 수납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법인은 개발상을 대상으로 신축아파트에 부엌가구와 관련 상품·기기류를 공급하는 프로젝트 영업과 일반 소비자 영업을 병행 중이다. 2007년 항주(杭州)에 설립한 500평 규모의 대리점을 비롯해 북경(北京)·왕징(王京)·무한(武漢)·톈진(天津)·엔타이(烟臺) 등에 대리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 동북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한샘의 온라인 매출은 2014년 1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에서는 한샘 인테리어 직매장인 한샘 플래그샵을 운영해 인테리어 패키지 전시와 맞춤 판매를 하고 있다. 서울 잠실·방배·논현·목동, 경기도 분당, 해운대 센텀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대구 범어동에 국내 최대 규모인 9240㎡(약 2800평) 넓이의 인테리어 직매장을 오픈했다.

한샘의 경영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과 '동서양의 디자인을 넘어서'라는 슬로건 아래서 운영된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며 항상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주최하는 우수산업디자인상(GD), 한국산업 디자이너 협회(KAID)에서 주최하는 핀업(PinUP) 등에서 다수의 제품이 수상했다. 특히 2004년에는 일본 굿디자인전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4년 이케아의 한국 진출로 인해 국내 가구업계가 위협을 받았으나 지난해 한샘은 1조3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오히려 24%매출 신장을 이뤘다. 이는 한샘 설립 이후 가장 높은 매출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한샘의 기업슬로건이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의 집을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한샘 30% 매출성장 효자 'IK'·'한샘몰'

찾아가는 인테리어 'Ik'
연 매출 2000억원대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
지난해 1000억원 돌파

한샘(회장 최양하)의 매출 신장세가 심상치 않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 신장세는 14.58%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31.54%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 8043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상반기 6153억원 보다 23.5% 증가했다. 한샘의 2015년 매출은 1조6000억원대로 전망된다.

한샘 측은 이같은 성장의 배경으로 2008년부터 준비된 새로운 유통 사업 모델을 꼽았다.

먼저 2008년 출시된 아이케이(Ik·Interior Kitchen) 사업의 성공이 한 몫했다.

아이케이는 기존 대리점 유통를 벗어난 인테리어 업체와 제휴를 통한 새로운 유통 사업으로 인테리어 기사가 직접 방문해 넓이와 용에 맞춰 부엌인테리어를 꾸며주는 것이다.

한샘 플래그샵 대구 범어점 '키친앤바스'관. 한샘의 아이케이는 집의 넓이·비용·취향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부엌인테리어를 제공한다. /한샘 제공

한샘은 최근 부엌가구 구매 행태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파악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아이케이는 지난해 약 21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한샘 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같은 해 시작한 한샘의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도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한샘의 온라인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9년 2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샘 측은 꾸준한 히트상품의 개발이 한샘몰의 성공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온라인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샘몰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7개의 대규모 인테리어 직매장인 '한샘 플래그샵'과 함께 지역 대리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기존 100평 내외였던 대리점을 500~600평 규모로 확장해 고객들이 대리점에서도 직매장 수준의 서비스와 상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현 기자

한샘 주요 연혁

- 1970년 한샘 설립
- 1977년 국내최초 부엌가구 수출
- 1979년 수출 100만 달러 돌파
- 1986년 미국 현지 법인 설립
- 1989년 HANCAD 개발로 대리점 전산화
- 1990년 한샘 디자인 연구소 설립
- 1991년 일본 현지법인 설립
- 1992년 제3공장 완공 (한국건축문화 대상 수상)
- 1996년 중국 현지법인 설립
- 1997년 한샘 인테리어 사업본부 출범
- 국내 최대 인테리어 전용쇼룸 1호점 개장
- 1999년 ERP 프로젝트 시작
- 2000년 한샘플래그샵 논현동점 오픈
- 2001년 한샘플래그샵 분당점 오픈
- 2002년 한국 증권거래소 상장
- 2004년 1월 중국공장 완공
- 2006년 1월 월드베스트 브랜드 '키친바흐' 론칭
- 2007년 10월 인테리어 부엌브랜드 'ik' 론칭
- 2008년 9월 '한샘바스(HANSSEM BATH)' 론칭
- 2009년 1월 '한샘 플로' 런칭
- 2009년 10월 한샘플래그샵 잠실점 오픈
- 2011년 4월 '한샘키친바흐전시장' 대구 첫 오픈
- 2011년 10월 맞춤 매트리스 '컴포트아이' 출시
- 2011년 11월 한샘플래그샵 부산센텀점 오픈
- 2012년 4월 '한샘키친바흐전시장' 오픈
- 2013년 9월 오이도 물류센터 오픈
- 2013년 매출 1조 달성 (2013년 매출 1조 69억원)
- 2014년 3월 한샘플래그샵 목동점 오픈
- 2014년 8월 한샘 서비스센터 사이트 오픈
- 2015년 8월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오픈

국가장학생 취업역량 키운다

한국장학재단

고용정보원과 업무협약 우수인재 지원 체계 구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지난 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장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희망사다리장학생 등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또한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진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 제공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정보와 다양한 직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오른쪽)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지난 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한 청년층의 고용절벽 문제를 공감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업 정보와 일자리 기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와 중소·중견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현장실습 진행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총 200억원, 2500명(취업지원유형 2300명, 창업지원유형 200명) 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9월부터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대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뉴아시아CC, 한국인 특별회원 모집

연중 8개월 정회원 자격 모든 서비스 한국어 운영

필리핀의 뉴아시아 골프&스파 리조트 '뉴아시아CC'에서 한국인 VIP를 위한 특별회원 모집에 나섰다.

필리핀의 뉴아시아 골프&스파리조트 '뉴아시아CC'의 18번홀 그린. /뉴아시아CC 제공

뉴아시아 골프&스파 리조트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이 이국적인 낭만의 섬 필리핀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한국의 가을 날씨를 닮은 기후와 피나투보 화산에서 시작하는 강줄기가 골프장을 품에 안아 환상적인 골프코스를 자랑한다. 한국인 회원만이 플레이하는 100% 한국형 골프장으로, 해외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에게는 유명한 골프클럽이다.

뉴아시아CC는 기존 회원권의 가격을 줄인 라이트 회원권으로 한국인 회원을 모집 중이다. 연중 8개월 동안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준회원가격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으로, 개인 1000만원(기명1+무기명1), 법인 2000만원(기명1+무기명3)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기존 로얄 회원권은 개인 3500만원(기명1+무기명1), 법인 7000만원(기명1+무기명3)이다.

회원에게는 그린피 무제한 무료, 2인1실 호텔 무료, 조식 무료, 골프장 공항간 셔틀버스 무료, 온천 무료, 연회비 무료, 평생회원권 양도·양수 가능, 동계 성수기 준회원 대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골프장 27홀, 스파 빌리지 100동, 호텔식 한국식당, 스파테라피(90도 게르마늄 온천수), 피나투보 화산, 모래찜질방, 마사지실, 노래방, 승마장, 카지노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초대형 복합리조트, 영어 어학원 운영, 자녀연수 교육 실시 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문의 : 02-541-4242

/김보배 기자 bobae@

의상대사 창건… 韓 화엄종 근본 도량

영주 부석사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창건 설화를 간직한 부석사에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뜬 돌[浮石]'이 무량수전 서쪽 뒤편에 남아 있다.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당나라 처녀 선묘가 뜬 돌로 변해 의상대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쫓아냈다는 전설을 간직한 돌이다.

부석사에는 무량수전(국보 18호), 조사당(국보 19호), 소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45호), 조사당 벽화(국보 46호), 석등(국보 17호), 3층 석탑(보물 249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보물 220호), 당간지주(보물 255호), 원융 국사비(경북 유형문화재 127호) 등이 남아 있다.

◆ 추천 여행 코스

1일 차 : 풍기 IC→영주 금성대군 신단→고치령~마구령 드라이브→부석사(은행나무 길~일주문~범종루~안양루~석등~무량수전~3층 석탑~조사당)→부석사 일몰 감상→숙박

2일 차 : 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영주 순흥 벽화고분→중앙고속도로 풍기 IC→귀가

◆ 전문가 팁

영주 부석사는 의상대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로, 곳곳에서 의상대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의상대사의 초상이 보관된 조사당 앞 동쪽 처마 아래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나무로 변했다는 '선비화'가 있다.

/최치선 기자

상명대, 가상현실 캠퍼스 시대 연다

내일 상암동 DMC 홍보관 '개방형 오픈 캠퍼스 세미나'

CREATIVE OPEN CAMPUS 2015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오는 10일 서울 상암동 DMC 홍보관 3층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형 오픈 캠퍼스(COC)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융복합 학문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상명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 번 기술·콘텐츠 산업의 융합적 성장과 가상현실을 캠퍼스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상명대 구기헌 총장과 정세균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 COC 구축계획, 글로벌 변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교육방안 등의 발제가 있다. 2부에서는 토크쇼를 통해 참석자들간의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상명대 황민철 교수는 'COC가 지향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세미나와 함께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COC 관련 융합기술의 전시회도 개최한다.

/최치선 기자

서울여대, 국제 매너 갖춘 지성인 육성

문화·정치·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교양교과목 '국제 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을 개설해 8일부터 매주 화요일 문화,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특강을 연다.

서울여대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학기 각 분야 명사들의 강연을 교양교과목으로 열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서 고루 활약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학생누리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8일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장유정 영화감독,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티브 김 꿈과미래재단 이사장, 김기석 국경없는교육가회 대표 등이 강연을 한다.

/최치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15일 '만성콩팥병'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만성콩팥병과 당뇨 관리(류동열 신장내과 교수·사진) ▲만성콩팥병과 스트레스 관리(김현희 의료사회 복지사)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에서의 식사요법(강병진 영양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 신장환자용 안심 간편 식품과 2016년도 달력이 제공된다.

◇문의 : 이대목동병원 인공신장실(02-2650-5211~2)

/최치선 기자

star bag

‘아수라’로 연기 대결

배우 **정우성, 황정민**이 김성수 감독의 신작 ‘아수라’로 만난다. ‘아수라’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범죄액션영화다. 오는 9월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

中 드라마 특별출연

배우 **김희선**이 중국 드라마 ‘환성’에 특별출연한다. ‘환성’은 궈징밍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블록버스터 드라마다. 김희선은 원작에 등장하는 절세미인 연희 역으로 출연한다.

‘목숨 건 연애’ 크랭크인

하지원, 천정명, 진백림이 주연을 맡은 영화 ‘목숨 건 연애’가 지난 6일 크랭크인했다. 연쇄 살인 사건을 둘러싼 세 남녀의 오싹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몬트리올영화제 초청

신예 배우 **김보령**이 영화 ‘우리의 마지막 여름’으로 제39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청소년기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김보령은 여주인공 유성미를 연기했다.

베트남서 남우주연상

배우 **강태오**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VTV ‘2015 드라마어워즈’에서 드라마 ‘오늘도 청춘’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한국 배우가 베트남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수상한 건 강태오가 처음이다.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7년 만에 솔로 컴백 전 진

전진(35)은 그룹 신화에서 예능감이 가장 뛰어난 멤버다. 재치 있는 입담과 장난기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진의 모습 중 하나다. 그러나 전진은 “나는 예능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솔로로는 7년 만에 발표하는 미니앨범 ‘리얼(#REAL#)’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진을 만날 수 있는 음반이다.

‘리얼’은 전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이다.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담고자 노력했다. 7일 오후 정동극장에서 열린 ‘리얼’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에서 전진을 만났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작곡을 배웠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소집 해제 이후 신화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데뷔 후 17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앨범은 실력파 프로듀서팀 아이코닉 사운즈와 함께 한 5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인 ‘와우 와우 와우(Wow Wow Wow)’는 전진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는 댄스곡이다. 강렬한 비트, 단순하지만 중독적인 가사가 포인트다. 안무에 많은 신경을 쏟았다. 전진은 “그동안 다른 춤도 많이 춰봤지만 이번 ‘와우 와우 와우’는 정말 힘든 안무였다”며 “이 안무를 하면서 6~7kg 정도 몸무게가 빠졌다. 직접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자작곡 담은 미니앨범 ‘리얼’ 발표
댄스부터 R&B·발라드까지 다양
데뷔 17년 만에 새로 태어난 기분
콘서트 등 내년까지 열심히 활동

그러나 이번 앨범의 진면목은 타이틀곡을 제외한 노래들에서 드러난다. 오프닝 트랙인 ‘식스티 세컨즈’는 세련된 비트가 돋보이는 노래다. 베이스와 가성을 넘나드는 전진의 색다른 가창력이 빛난다. ‘온 마이 오운(On My Own)’ ‘유(You)’ ‘너만 있으면 돼’는 가을에 어울릴 R&B와 발라드 장르의 곡이다. 이전까지 본 적 없었던 전진의 진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음악감상회에서 전진은 “신화 멤버들 중에서는 예능을 잘 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능화’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평소에는 진지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예능 잘하는 사람’이 아닌, 진지한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앨범 타이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씩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쇼케이스가 아닌 음악감상회로 컴백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전진은 “‘리얼’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많은 노력이 숨겨진 앨범이다. 완성도 있는 앨범으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악감상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중가수로서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미고 싶다”며 “앞으로 음악도 무대도 모두가 좋아할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7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만큼 왕성한 활동으로 팬과 만날 계획이다. 다음달 24일에는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콘서트도 개최한다. 전진은 “일본 공연을 비롯해 아시아 투어도 준비 중”이라며 “내년 신화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바쁘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뷔 후 17년 동안 늘 곁에 있어준 팬, 그리고 가족 같은 신화 멤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전진은 “앞으로 더 즐겁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역대 가장 젊은 이방원 그린다

팩션 사극 ‘육룡이 나르샤’ 내달 5일 첫 방송

SB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극본 김영현·박상연, 연출 신경수)가 역대 가장 젊은 이방원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미세스캅’ 후속으로 다음달 5일 첫방송되는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 건국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50부작 드라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군주 이방원을 중심으로 여섯 인물 ‘육룡’의 야망과 성공 스토리를 다룬 팩션 사극이다.

2011년 방송된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전사를 다룬 작품)로 국내 드라마로는 첫 시도다. 전작에서 함께 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와 신경수 감독이 4년 만에 의기투합했다.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연 작가는 “조선 개국을 그린 작품이 많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방원의 나이다. 역대 이방원 중에서 가장 젊은 이방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룡이 나르샤’의 집필을 맡은 김영현(왼쪽)과 박상연 작가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

젊은 이방원에는 최근 영화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캐스팅됐다. 그와 대립하는 정도전 역은 배우 김명민이 맡아 10년 만에 사극으로 복귀한다. 이밖에도 신세경, 변요한, 윤균상, 천호진 등이 출연한다.

김영현 작가는 “정도전과 이방원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기획했다. 실존 인물들에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했던 이방지, 무휼과 동생 분이 등 가상 인물을 추가해 왜 이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희철 기자 hhc@

서울시뮤지컬단

Ticket Open

9월 16일 오후2시

9월 30일 까지 예매시 30% 조기예매 특별할인

조기예매할인 예매자 중 추첨을 통해 2분께 '제주도 효도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Musical

서울1983

연출 _ 김덕남 | 작 _ 김태수 | 작곡 _ 송시현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그시절 젊은이들의 희망과 좌절의 이야기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 주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보물 '월인석보'·'경국대전', 경매 나왔다

秋 미술 경매, 우수작 대거출품
서울옥션 14~16일·K옥션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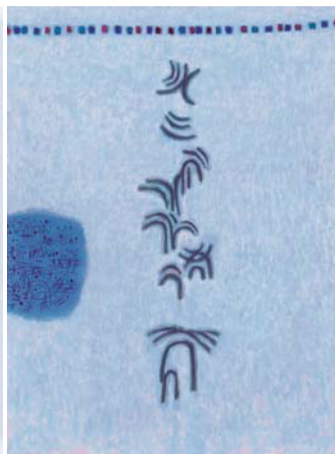
가을 미술품 경매 시장에 보물을 비롯해 옛 선조들의 학문적 깊이를 볼 수 있는 고서 등 고미술품과 현대미술의 대가 김환기 등 한국의 대표 작가들의 우수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 다산의 인간미 '하피첩'…신라인의 고취 '장경호'

서울옥션(대표 이옥경)의 9월 경매에선 보물 제 1683-2호로 지정된 '하피첩'이 주목을 끈다. 810년 가을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이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경기도 양평 마현에 있던 부인 홍씨가 보내온 헌 치마를 재단해 3개의 서첩으로 만들어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써준 가계첩(집안 사람들이 경계할 것과 교훈으로 삼을 것을 담은 첩) 성격의 글이다.

서울옥션은 14~16일 서울옥션 평창동 본사에서 9월 경매를 개최, 총 260점을 출품한다. 추정가 총액은 110억원~160억원이다.

'고서경매 - 책의 기운 문자의 향기'에서는 하피첩을 비롯해 보물 제745-3호 '월인석보',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등 18점의 보물과 고서 450점이 출품된다.

'하피첩'(왼쪽)과 김환기의 '03-II-66'. /서울옥션·K옥션 제공

월인석보는 세조 5년(1459년)경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판본이며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글 사용례를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국가 문화유산이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기본 법전이다.

고미술품 가운데는 보물 제 1204호 '의겸등필수월관음도'가 출품된다.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상적 측면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조선적으로 새롭게 변형시킨 18세기 조선 최고의 승려화가 의겸의 작품이다.

아이옥션(대표 공창규)이 8일 아이옥션 본사에서 '30th I Auction 2015 Sale' 의 타이틀로 진행한 경매에선 신라인들만의 독특한 회화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출토 사례가 매우 드문 토기 '장경호'가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인형문 사이사이에 점선과 이중원문으로 장식된 늘어진 목걸이와도 같은 독특한 형태의 무늬를 베풀고, 굽에는 상·하단으로 네모난 굽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문양을 통해 신라의 고취를 느낄 수 있다.

◆ 김환기 대표작 '3-II-66'

K옥션(대표 이상규)의 가을경매에는 김환기의 작품 8점을 포함해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 천경자의 인물화 2점, 한국 근현대 미술을 빛낸 장욱진·이인성·도상봉·오지호·이대원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총 177점, 약 83억원 어치의 작품이 16일 오후 5시 K옥션 신사동 본사에서 경매에 올려진다.

이번 경매 최고가 작품이자 김환기의 대표작인 '3-II-66'은 투명하고 맑은 터치감과 조화로운 색채가 아름다운 1966년 뉴욕시대 작품이다. 1963년 뉴욕에 도착한 김환기는 뉴욕시대 이전의 두터운 마티에르를 점점 없애고 화면을 분할, 자연소재를 단순화하기 시작한다. 단순화한 자연소재를 상형문자와 같은 형태로 그려 넣고 엷게 칠한 색채, 바탕에 스며드는 듯한 번짐의 효과를 통해 투명한 깊이감을 완성했으며 묽은 물감을 캔버스 위에 엷게 번지게 하는 기법을 완성했다.

한국화와 고미술로는 현재 심사정·심산 노수현·청전 이상범 등 주요 한국화 작가의 작품과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백자 달항아리, 백범 김구와 박정희 휘호 등이 출품된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체육대학 여신 총출동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미모의 체육대학 출신 4인방 오정연·스테파니·고우리·오나미가 입담을 펼친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중 최초로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고우리는 기선을 제압하는 기체조와 접시 돌리기로 운동 신경을 입증한다. 스테파니는 DJ들이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 정도의 수준급 발레 실력을 선보인다. 카라의 구하라, 애프터스쿨의 유이 등 자칭 걸그룹 전문 연애 상담사라는 오정연은 걸그룹의 연애사를 공개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KBS2 '추적 60분'

오후 11시10분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추적한다. 전체 인구 중 565만명의 자영업자 중 창업 10년 후 생존율이 고작 16.4%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그린다.

◆ JTBC '유자식 상팔자'

오후 9시40분

세 모녀들은 5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면서 젤라또부터 파스타까지 원없이 즐긴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55분

'짠돌이' 러시아 남편 안톤의 쇼핑법이 공개된다. 비올라 연주로 아내의 아침을 깨울 정도로 로맨틱한 그이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는 안톤은 가족과 함께 쇼핑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닥터의 승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내 나이가 어때서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50 JTBC 앵커들이 뽑은 히든싱어 시즌1 베스트 (재)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아궁이 (재)	0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00 Let 미인 5(재) 06:50 오 나의 귀신님 (재) 08:0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농업신화 06:00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재) 06:30 나를 바꾸는 30분 (재)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열정식당 (재) 08:30 그곳에 그집 09:00 푸드 헌터 (재)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집밥의 여왕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다큐 공감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세계대전>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비타민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앙코르 2015 DMC 페스티벌 클래식 음악회 도시의 칸타빌레 14:05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40 현장토크쇼 TAXI (재) 15:30 명단공개 (재) 1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청년,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동행 (재)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어셈블리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4:10 MBC 뉴스 24 24:45 2015 DMC 페스티벌 드라마뮤직 콘서트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40 유자식상팔자 23:00 연쇄쇼핑가족 24:2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00 집밥 백선생 (재) 19:2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20 무비스토커 21:40 수요미식회 23: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24:20 문제적 남자 (재)	18:00 Save My Bakery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Outrageous Food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朴 '슈퍼 그랜드 슬램' vs 金 '메이저 2연패'

<박인비> <김효주>

佛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맞대결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루키 김효주(20·롯데)가 각각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메이저 대회 2연패'를 놓고 맞대결한다.

오는 11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파71·6453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은 LPGA 투어의 시즌 5번째이자 마지막 메이저대회다. 총 325만 달러(약 39억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한국 여자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회다. 박인비는 반박의 여지 없는 '메이저 퀸'으로 등극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정한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5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박인비

김효주

박인비는 이미 지난달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뤘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여러 시즌에 걸쳐 5개 중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박인비가 5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야 커리어 그랜드 슬램 칭호를 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LPGA는 4개 대회만 석권해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며, 5개 대회를 휩쓸면 앞에 '슈퍼'를 내걸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이 같은 반박을 불식했다.

박인비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논란을 잠재우고 LPGA 투어 최초의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래머에 등극할 수 있다. 또 LPGA 투어 시즌 5승째를 올리고, 메이저 대회 통산 8승 및 시즌 3승이라는 위업을 이루게 된다. 이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컵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감이 더 크다. 이 대회가 메이저 대회로 승격되기 1년 전인 2012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에게도 에비앙 챔피언십은 놓칠 수 없는 대회다. 김효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해 올해 LPGA 투어에 신인으로 데뷔했다. 당시 김효주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갈아치운 기세로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역대 메이저 대회 최소타 신기록인 61타를 치며 단독 선두를 달렸고 최종 우승했다. 김효주가 이번에도 우승하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JTBC 파운더스컵 이후 시즌 2승째를 거두게 된다. /하희철기자 hhc@metroseoul.co.kr

리키 파울러, PGA 역전 우승

PGA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배상문 PO 진출에 만족

리키 파울러(미국)가 1000만 달러(약 120억원)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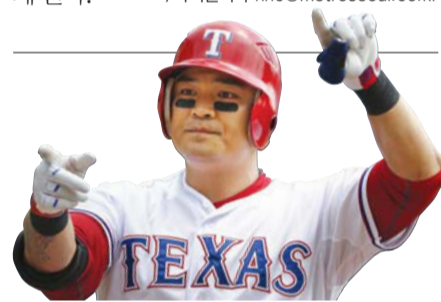
파울러는 8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214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했다. 동반 플레이어 헨리크 스텐손(스웨덴·14언더파 270타)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8일(한국시간) 미국 보스턴 TP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리키 파울러(미국)가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파울러는 올 시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포함 2승째를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 22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그는 이날 우승으로 순위를 3위로 끌어올렸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는 6타를 잃는 부진 속에 공동 33위(2언더파 282타)에 올라 페덱스컵 랭킹 14위에 자리했다.

대니 리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출전을 노리고 있다. 2년간의 성적을 계산해 선발하는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랭킹에서 10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돼 출전이 유력하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 나간 배상문(29)은 1언더파 283타로 공동 39위에 올라 70명이 나가는 플레이오프 3차전 출전을 확정했다. 배상문의 페덱스컵 랭킹은 23위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물오른 타격감

4경기 연속 안타… 시즌타율 최고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추신수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 1사구 1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53에서 0.254(457타수 116안타)로 시즌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쳤고 6경기 연속으로 두 차례 이상 출루하는 멀티 출루도 기록했다.

추신수는 6회초 1사 1루에서 엘리아스의 2구째인 시속 약 127㎞ 커브볼을 받아쳐 2루 옆을 스쳐 지나는 중전 안타를 때렸다. 애드리안 벨트레의 우전 적시타에 델리노 드실즈와 함께 홈을 밟아 선취 2득점을 얻었다.

텍사스는 9회말까지 시애틀 타선에 7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실점을 막아내면서 3-0 승리를 거뒀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세 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

같은 날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지난 두 경기에서 침묵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 0.286(388타수 111안타)을 유지했다.

올 시즌 23번째로 4번 타자로 나선 강정호는 6회 투아웃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디스칼라파니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안타로 이었다. 그러나 8회 1사 1, 2루 절호의 기회에 병살타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피츠버그는 빈공에 실책 4개가 겹쳐 1-3으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독일, 유로2016 본선행 눈앞에

3-2 역전승, 조 1위로 스코틀랜드 탈락 위기

독일이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예선에서 스코틀랜드를 물리치고 본선행에 한걸음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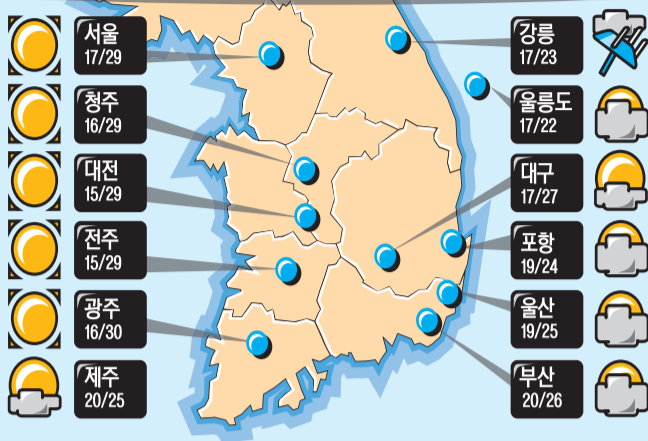
독일은 8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던 파크에서 열린 유로 2016 D조 예선 8차전에서 토머스 뮐러의 멀티골을 앞세워 스코틀랜드에 3-2로 승리했다.

독일은 전반 18분 만에 뮐러가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으나 10분 뒤 훔멜스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다. 전반 34분 뮐러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지만 전반 종료 2분여를 남겨놓고 제임스 맥아서에게 두 번째 동점골을 내줬다.

독일은 후반 9분 귄도간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로 스코틀랜드의 골망을 가르며 결승골을 넣었다.

독일은 두 경기를 남겨 놓고 6승1무1패(승점 19)로 조 1위를 지켜내 조 2위까지 직행할 수 있는 본선 무대가 유력해졌다. 스코틀랜드는 3승2무3패(승점 11)로 조 4위로 탈락 위기에 놓였다.

같은 조 폴란드는 8골을 몰아넣으며 지브롤터에 8-1 대승을 거두고 조 2위(승점 17)를, 아일랜드는 조지아에 1-0으로 승리하며 조 3위(승점 15)를 지켰다. /하희철 기자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토마스 뮐러가 8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던 파크에서 열린 유로 2016 D조 예선 8차전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7		1			
1	8			4	3			
2					7	4		
	3	1		5		8	7	
		8	6					9
			9	7			6	4
			4		5			
		2						1

	3			1		9		
1					4			2
9	7		2	8			6	
5		3				6		
				4				
		9				2		4
	5			2	6		9	8
2			4					1
		8		7			2	

스도쿠 정답

7	5	4	8	2	6	1	9	3
6	2	3	7	9	1	5	4	8
1	8	9	5	4	3	6	2	7
2	9	6	1	8	7	4	3	5
4	3	1	2	5	9	8	7	6
5	7	8	6	3	4	2	1	9
8	1	5	9	7	2	3	6	4
3	6	7	4	1	5	9	8	2
9	4	2	3	6	8	7	5	1

8	3	2	6	1	7	9	4	5
1	6	5	9	3	4	7	8	2
9	7	4	2	8	5	1	6	3
5	4	3	8	9	2	6	1	7
6	2	1	7	4	3	8	5	9
7	8	9	5	6	1	2	3	4
3	5	7	1	2	6	4	9	8
2	9	6	4	5	8	3	7	1
4	1	8	3	7	9	5	2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m not sweating it

A: Sorry to hear you didn't get the job. I know you really wanted it.

B: I'm not sweating it.

A: What? You said you'd die if you

B: didn't get the job.

A: Yeah, well…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B: That's pretty optimistic of you.

A: Yeah. I'm feeling pretty positive.

B: And I just saw the person they picked.

A: And?

B: He's soooooooo hot.

A: rofl NOW I get it.

그쯤이야

A: 그 자리 안됐다며, 유감이다. 네가 정말 되고 싶었던 거 아는데.

B: 그쯤이야.

A: 뭐? 그 자리 안되면 죽고 만다며.

B: 응, 뭐, 기회 더 있으니까.

A: 꽤 낙관적인데.

B: 응.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글구 누가 뽑혔는지 방금 봤거든.

A: 그래서?

B: 그 사람 지이~~~인짜 멋있어.

A: 빵터진다. 이제 알갔쓰.

* rofl: rolling on the floor의 약어.
빵터짐, 너무 우스워서 바닥을 구르며 웃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시험 앞두고 대성통곡하는 꿈을 꿨습니다
짐을 덜고 속이 시원해진 것… 합격 암시

라모스 남자 88년 3월 4일 양력 4시 15분

Q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에는 역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꿈 해몽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는 것을 보고 88년생 남자로 저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올 인하고 있는 처지에 신경이 쓰여 올려 봅니다.

세계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지구환경에 관계되는 기후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시험에 떨어져 대성통곡을 하다가 깼습니다. 꿈과 현실은 반대일 수 있다고 하지만 꿈 해몽 차원 뿐만 아니라 저의 사주에 따른 시험 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이 될 수 있나요?

A 꿈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습니다. 꿈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전에 현재에 충실하고 시험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여 내가 존재하는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언덕 위에서 놓친 손수레에 밀려 내려가듯 삶이 너무 바쁘고 모든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울 때도 어떻게 울었느냐에 따라 해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계획하던 일이 성취됨을 나타냅니다. 큰소리로 마음껏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듯이 이번 시험에 합격 하여 그 동안의 짐을 덜어 내니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므로 합격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누가 볼까봐 숨죽여서 찔찔 거리며 훌쩍거리는 울음이 아니니 안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세요.

시험을 보게 되는 현 시점에 관운이나 시험 운이 포태법 상으로 좋은 운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합격의 예시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주의할 점은 귀하의 사주는 무토(戊土)생일간이 봄철에 태어나고 천간(天干)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편관격(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의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화산의 형상'에 일인(日刃:생일지에 칼을 차고 있음)이니 유아독존의 만심(慢心)을 품을때가 있고 대개 완고하며 융통성이 없는 편입니다. 매사가 꼼꼼하고 외견은 군자처럼 보이지만 안의 자리가 오화(午火)로 뜨거워 불안정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주지지(地支)에 화기가 왕하여 금기(金氣)가 해를 당하므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 흡연은 삼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9일 (음 7월 2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경쟁 자가 너무 많습니다. **60년생**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세요. **72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84년생** 얼마 전 다툰 사람이 용기내어 사과를 요청합니다. 용서하세요.

49년생 높은 집에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61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85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50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62년생**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74년생**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86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51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줍니다. **63년생**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75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7년생** 기회는 많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2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64년생** 새롭게 시작함이 좋습니다. **76년생**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88년생** 희망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53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77년생**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8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55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6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7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90년생** 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56년생 건강을 다스릴 때 입니다. **6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게 탈입니다. **8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9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57년생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69년생** 회사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81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픈 하루입니다. **93년생** 근신할 때 입니다.

58년생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70년생** 업무를 할 때에는 주위와 협동하세요. **82년생** 무작정 벌인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94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59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71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83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95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가깝고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 가까운 나라

오양심 시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통합논술 주임교수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깊어진 골 때문에 가깝고 가까운 나라인데도,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소통이 되어야 역사의 사슬에서 놓여날 수가 있습니다. 양국의 국민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나랏일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양국의 각계각층에서,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가깝고 먼 나라가 아닌,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한 공존화해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화가이신 '고바야시 후요(小林芙蓉)' 선생은 한일관계 개선에 큰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2000년 오사카 시의 권유로 광주 비엔날레에 참가한 것이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독보적인 서화가입니다. 자신 만의 독특한 화풍과 퍼포먼스로 수 십 차례, 서書, 화畵 전시를 통해, 한일 간의 평화와 우정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9월 21일과 22일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전으로, 국회의원로비에서 한일여류문화교류시서화전(고바야시 후요 서화가와 오양심 시인)을 열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문화예술로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개선을 위해 축구로 민간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남대 축구부(감독 여범규)와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축구부(감독고야마 테츠지)는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한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한일친선 축구경기를 가졌습니다. 두 대학은 축구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왕래하며,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에 앞서 2012년에는 일본의 조사이국제대학이 한남대 축구부를 초청해 친선경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남대의 축구행사는 지난 친선경기에 대한 답례였지만, 한일 관계를 풀어보자는 순수한 민간외교차원이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케이팝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연령층은 초등학생부터 60,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뿜어낸 열기로 문화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팀은 가족에서부터 대학 동아리까지 실력이 수준급이었습니다. 같은 날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을 문화회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40, 50대 주부들이 우리나라의 소녀시대 노래에 맞춰 그룹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걸 그룹 최신 곡은 절정에 달했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여론입니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정치와 외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한일 교류 50년의 성과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류열풍은 한류사랑으로 변하여 일본열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같은 땅을 짚고 일어나듯,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동체대비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화해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社 說

남북한 합의정신 살려나가기를

남북한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남북한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고위급접촉에서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이후 첫 결실이다.

이번 협상 결과 우리쪽이 보기에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를테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시기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점을 찾았으니 상서로운 일이다.

지난달 남북한 고위접촉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은 협상을 보기 좋게 마무리했다. '무박 2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상이한 입장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 끝까지 입장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같은 협상방식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여러 가지 국내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이번에 결실을 맺음으로써 향후의 남북한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각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당국간 회담도 머지 않아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따라 5·24조치 해제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한 사이에 모처럼 형성된 긴장완화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측이 자제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합의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은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쌍방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감장에는 재벌이 없었다

기자 수첩
김 성 현
<유통부>

이달 10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나 '재벌' 관련 이슈가 많았던 해다.

올해 초 신세계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부터 시작해 대한항공 조현아 회항 사건, 포스코 비자금, 동부그룹 비자금, 성완종 리스트, 신세계 차명주식,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테스코의 홈플러스 먹튀 매각 등 재벌가에서는 셀 수도 없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의 재벌 총수들은 올해 국감장에 서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 5단체장도 모두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재벌들이 급격히 성장한 1970~1980년대 당시 '국민학교'(초등학교) 화장실에도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표어가 붙었다. 온 국민이 국내 기업의 성공이 곧 나라의 성공이라 믿고 국산품을 애용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한국인들의 애국심에 번번히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업고 성공한 재벌 총수들과 그 후손들은 이제 '경제인'으로 분리돼 특별한 사람이 됐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소상공인을 몰아내고, 근로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며 각종 비자금을 통해 재산 숨기기를 일삼고 있다. 탈세·배임·횡령 등의 불법행위도 저지른다. 이마저도 '경제인 사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처벌을 받아도 곧장 사면된다.

재벌들의 도덕적 문제나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곳이 1년에 한번 있는 국감장이다. 하지만 올 국감장에는 문제의 재벌 총수들이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기자에게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거 같지? 잠깐 어렵겠지만 200~300개들의 삼성이 일어날 것이다. 삼성을 만든 것은 국민이지 이 씨 신화가 아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운동 시 뻐근한 어깨, 회전근개파열 의심

생활 건강

직장인 야구 동호회에서 투수로 맹활약 중인 김민호씨(28)는 얼마 전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다. 그는 경기 후 어깨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동안 야구경기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기는커녕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 일상생활이 불편할 만큼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이 변성되고 파열되는 증상을 말한다. 예전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흔히 발병했지만 최근에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파열 초기에는 어깨 관절 사용을 자제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져 김모씨처럼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전근개파열은 자연 치유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올려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잠을 깨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눌린 신경을 따라 어깨, 팔, 손끝에 통증이 나타나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법이 시행될 수 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체외충격파는 피부 바깥에서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해 손상된 인대와 조직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병변 주변 조직의 혈관이 생성되도록 도와 어깨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은 내원만으로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기 치료를 놓쳐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관절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인사

◇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주택정비과장 부이사관 김이탁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기술서기관 김택진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기관 김동현
◇조달청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전자조달국장 김선병
◇한화도시개발 ▲승진 △사업총괄 박동일 상무
◇동양대 △국제교육처장 정대영 △공무원사관학교 원장 고권현 △건축소방행정학과장 최재형 △철도전기통신학과장 조규화 △유아교육학과장 이혜원
◇월요신문 ▲취임 △편집인·편집국장 이정규
◇메트라이프생명 △CA채널 담당 전무 김성환 △에이전시 이노베이션 담당 전무 박승배

부고

▲김다엽씨 별세, 정정선(전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부장)·창록·길우씨 모친상=8일 오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061-759-9090
▲조성구 씨 별세, 조준희(유라클 대표이사)·광희(굿모닝푸드 대표이사)·순희(이랜드 디자인 담당이사)·정호(SK하이닉스 부장)씨 부친상, 남창호(애리조나 주립대 교수)·김종헌(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씨 장인상=8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02-2258-5940

軍과 함께하는 2015 wonju dynamic

Dancing Carnival

아시아의 리오!
댄싱카니발!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드는
지상최대, 최장의 거리퍼레이드 축제!
총상금 1억 5천! 5분의 승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9.16(수)~20(일)

원주시 따뚜공연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대

개막식
한국전통의날

군악의 날

클래식&합창의날

댄싱카니발의 날

폐막식
댄싱카니발 BEST15 경연

주최 원주시 제 36사단 주관 후원 강원도 GANGWON PROVINCE 1군사령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